

오늘의 기사관

금남로 공원 준공식 오후 8시 광주시 금남로 3가 공원

(25일)
▶금남로 공원 준공식=오후 8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 공원 이 벤트광장.
▶목포 지역문화산업 연구센터 추진 경과 보고 및 발전방안 세미나=오후 2시 목포벤처지원센터 대회의실.
▶제 22회 진도 예술아카데미 운영 개강식=오전 10시30분 진도군 향토문화회관 소공연장.

전 11시 광주시 교육청 상황실.
▶광주·전남 지역혁신협의회 워크숍=오전 10시30분 광주 무등파크호텔.
▶광주향교 충·효·예 체험캠프=오전 9시 광주시 남구 충·효·예 체험관.

▶한여름밤의 향수공연=25일(화) 오후 8시 푸른동림터.
▶전통연희 한마당 공연=26일(수) 오후 1시30분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
▶동양화 부채 전시회=28일 까지 순천문화예술회관 1전시실.

역사속의 오늘
▶'고려사' 완성(1451)
▶영국의 스티븐슨, 증기기관차 시운전 성공(1814)
▶계정 민영환 태어남(1861)
▶청일전쟁 일어남(1894)
▶오상순 연상삼 변영로 등, '폐허' 창간(1920)
▶이탈리아 뭍술리니, 전투에서의 패전으로 인해 실각, 체포(1943)
▶한국 최초의 국악관현악단 설립(1964)
▶문화공보부 발족, 초대 장관에 홍종철(1968)
▶닉슨 미 대통령, 닉슨 독트린(람 독트린) 발표(1969)

뉴스퀴즈

22. 제 43회 대종상 시상식에서 한국 영화 사상 최다 관객동원 기록(1천230만명)을 세운 이 영화가 7개 부문을 휩쓸었습니다.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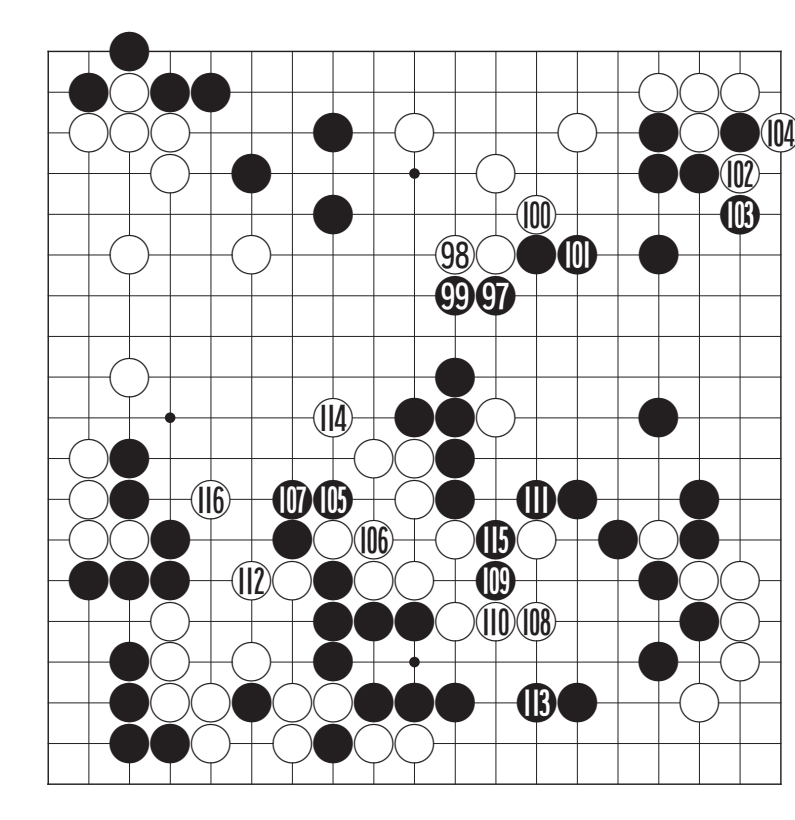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오늘의 유머

■빠 있는 아내의 잔소리
1. 텔레비전을 보다가 리모콘의 건전지가 다 되었는지 작동을 안한다.
2. 이어지는 가슴아픈 소리.
"제대로 넣는 법이 없단다니까"

5. 그냥 잠이나 잘려고 리모콘으로 텔레비전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다.
마누라는 아직 불 프로그램이 있었는지 다시 텔레비전을 켜다.
"꼭 혼자만 즐기고 잠든단다니까"

여자가 남자한테 말걸면 길 물어보는 것
남자가 여자한테 말걸면 작업 가는 것
여자가 '더치 페이' 주장하면 신식 가치관을 지닌 바람직한 여성
남자가 '더치 페이' 주장하면 무능력하고 돈없는 남자



제15회 광주시 바둑대회
"노림 對 노림" 3회전 제 6보(97~116)
승부의 저울추가 백 쪽으로 기울고 있는 장면이다. 그러나 '유리한 바둑을 지켜내는 것이 불리한 바둑을 역전시키는 것보다 힘들다'는 통계도 있듯 앞길은 아직도 모른다.

바둑소식
KIXX, 매일유업과 무승부
광주 KIXX가 지난 23일 인천에서 열린 KB국민은행 2006 한국바둑리그 2차 연고지 투어에서 인천 매일유업과 무승부를 기록했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25일(음 7월 1일 乙卯)

Table with 12 rows representing the 12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 predictions for the day.

굿모닝 잉글리쉬 <696>
I can't stand it any more!
더 이상 난 참을 수 없어
A: I quit! I'm so fed up with everything here!
B: Calm down! There's no need for you to get upset that much.

오하이오 니혼고 <696>
おかんじょう お願いします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A: おかんじょう お願いします。
B: はい 千三百円です。こまかいのありませんか。

니하오 쉰구워 <414>
明天早上六点钟叫醒我
내일 아침 6시에 모닝콜 부탁드립니다.
A: 你好。你有什么叫醒我的闹钟?
B: 有。明天早上六点钟叫醒我。

한자 이야기 <314>
賞狀(상장)
상(賞)은 배(貝)+상(尙: 나누어 주다)으로, 공로에 알맞은 칭찬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장(狀)은 견(犬)+장(狀: 가늘고 긴 형태 모양을 옆에서 그린 것)으로, 가늘고 긴 개의 모습이고, 나아가 사물의 모습으로 확대되어 사용되었다.